

2016 수시모집 논술전형 인문 사회계열 논술고사

경제학부/경영학부

문제 1

I. 문제

문제1 (40%, 800~1000자)

어떤 사람이 제시문 [가]를 읽고 암 발생 확률을 낮추기 위해 피자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의 타당성을 제시문 [나], [다], [라]각각의 논거를 바탕으로 평가하시오.

[가] 이탈리아의 한 연구에 따르면 피자를 먹음으로써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연구자들은 피자를 정기적으로 먹는 경우 식도암 발생 위험을 59%, 대장암 발생 위험을 26%, 구강암 발생 위험을 34% 낮춘다고 주장하였다. (… …) 이들은 식도암, 구강암, 대장암에 걸린 3,300명의 환자와 이러한 암에 걸리지 않은 5,00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얼마나 자주 피자를 먹었는지 조사를 하였는데, 피자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는 사람에게서 암 발생 확률이 낮았음을 발견하였다.

- 『BBC』, 2003. 7. 22

[나] 산업 혁명 이후 수많은 공장들이 급속도로 생겨나고, 자동차가 일상생활의 도구가 되면서,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 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한다. 그렇게 되면 지구 자체가 온실과도 같은 상태가 되어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게 된다. 정부 간 기후 변화 협의회(IPCC)는 지난 100년간(1906~2005년) 세계의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최근 10년간은 (… …) 1850년 이후 가장 높은 기온을 보여 주고 있다. 산업 활동을 비롯한 인간의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1970년 대비 2004년에 약 70퍼센트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같은 기간에 약 80퍼센트 증가하였다. (… …)

그런데 기후 변화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복잡한 자연계 현상의 산물이다. 지구의 기후는 순환 과정을 반복하면서 변화하고 제어되어 왔다. 과거 100만 년 동안의 기온 변동을 보면, 약 10만 년을 주기로 온난기와 한랭기가 반복되었다. 마지막 빙하기는 1만 2천 년 전에 종료되었고, 지금의 간빙기는 2만 8천 년 정도 더 지속되다가 1만 5천 년쯤 뒤에 다음 빙하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또 서기 536년~545년경에는 소빙하기가 있었다. 당시 강추위가 계속되고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여 유럽 인구의 대부분이 기아로 사망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의 지구 온난화는 인위적인 온실가스의 배출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간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 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대학에서의 성적이 나쁘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열심히 조사한 적이 있었다. 조사결과는 그렇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조사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으니, 그 이후에도 이 결과는 계속해서 매우 중요시되어 왔다. 따라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결국에는 담배를 끊어야 되는 결론으로 이끄는 것 같은데, 좀 더 나아가 흡연은 사람의 지능을 저하시킨다는 결론까지 가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이 보인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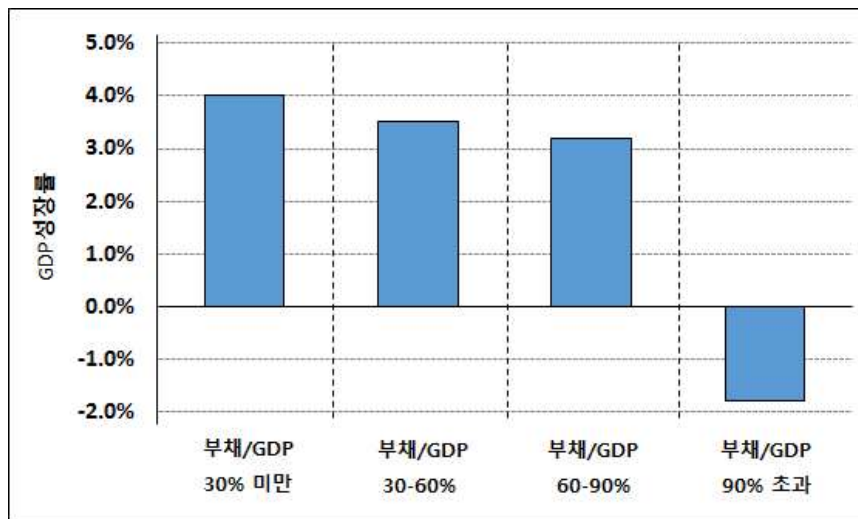
한편, (… …) 책을 멀리하면서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즐기는 학생이 담배를 더 많이 피울 수도 있지

않은가? 또는 누군가 이전에 입증한 외향적 성격과 성적불량 사이의 상관관계에 그 실마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성적과 지능 사이의 상관관계보다 더 밀접하다고 했었다. 어쩌면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담배를 더 많이 피울지도 모른다.

- 대럴 허프, 『새빨간 거짓말, 통계』

[라] (*다음은 미국 정부의 부채와 GDP성장률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과, 그와 관련된 서술이다.)

미국 연방 정부의 부채/GDP비율과 GDP성장률



- 카르멘 레인하트 · 케네스 로고프, 『부채의 시대 속 성장』

우리가 던져야 될 진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높은 부채가 낮은 경제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가 부채를 줄여야 하는가? 아니면 낮은 경제성장이 부채 부담을 증가시킨 원인인가? 만약 관찰된 상관관계가 후자의 이유를 반영한다면 이 연구결과가 정부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작을 것이다.

- 벨시 스티븐슨 · 저스틴 울퍼스, 『블룸버그』, 2013. 4. 28

II.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1.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읽고 분석하여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인식하는 능력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핵심적이며, 고등학교 교과목인 국어(하), 독서와 문법 I, 사회·문화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주제이다. 이 문제는 ‘어떤 사람’이 제시문 [가]의 자료에 기초해서 내린 ‘암 발생 확률을 낮추기 위해 피자를 많이 먹기로 한 결정’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가]에서 제시된 피자와 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제시문 [나], [다], [라], 각각에 기초하여 명확히 설명하는 것을 요구한다.

2. 문항 해설

주어진 자료를 읽고 분석하여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인식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능력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핵심적이며, 고등학교 교과목인 국어(하), 독서와 문법 I, 사회·문화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주제이다.

이 문제는 ‘어떤 사람’이 제시문 [가]의 자료에 기초해서 내린 ‘암 발생 확률을 낮추기 위해 피자를 많이 먹기로 한 결정’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가]에서 제시된 피자와 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제시문 [나], [다], [라], 각각에 기초하여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제시문 [나]에서는 지구 온난화가 온실가스의 배출 때문이 아니라 빙하기와 간빙기를 반복하는 자연현상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온실가스의 배출이 증가하면서 기온이 상승했다고 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 온난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결론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A와 B 사이의 단순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혼동하는 오류를 보여준다.

제시문 [다]는 흡연이 성적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제 3의 요소인 외향적인 성격이 흡연과 성적불량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A와 B가 동시에 일어났는데, 어느 것도 다른 쪽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A와 B 모두가 제 3요인인 C의 결과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시문 [라]에서는 주어진 그래프에 나타난 상관관계가 정부부채가 높아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서 부채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을 설명한다. 즉 A와 B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A가 B의 원인일 수도, B가 A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시문 [나], [다], [라]에 기초하여 [가]에서의 인과관계가 타당하지 않은 예를 제시한다면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1) 피자의 인기가 높아진 시기에 의학 발달로 암 발생이 감소했을 수도 있고, 2)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동시에 피자도 많이 먹을 수도 있으며, 3) 피자를 먹는 것이 암 발생 확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암에 걸릴 가능성이 낮은 건강한 사람이 피자를 더 많이 먹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3. 채점기준

- 제시문 [가]에서 제시된 A와 B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제시문 [나], [다], [라], 각각에 기초하여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 제시문 [나]에서는 A와 B 사이의 단순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혼동하는 오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제시문 [다]는 A와 B 모두가 제 3요인인 C의 결과일 수 있음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
- 제시문 [라]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A가 B의 원인일 수도, B가 A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 함

4. 답안사례

제시문 [가]에서는 피자를 먹는 것이 암 발생 위험을 낮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시문 [나], [다], [라]는 [가]의 주장과 달리 피자 섭취와 암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들을 제시한다.

제시문 [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고 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 온난화를 야기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으며, 지구 온난화는 복잡한 자연 현상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나]의 관점에서 [가]는 단순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두 현상을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로 상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피자를 먹는 빈도가 암의 발생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예를 들어 피자의 인기가 높은 시기에 의학의 발달로 인해 암 발생이 감소하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시문 [다]는 제 3의 변수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학생이 낮은 성적을 얻는다는 조사 결과에는 담배와 성적 외에도 성격 등의 변인이 개입했을 수 있다. 성격은 성적에도, 담배를 피우는 정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흡연이 성적불량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가]에서 암의 발생과 식습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제 3의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피자도 좋아하고, 암에 걸릴 확률도 낮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제시문 [라]는 원인과 결과의 반전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래프에서 나타난 정부 부채와 GDP성장률 간의 음의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정부 부채가 높으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서 부채가 높아졌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가]에서도 피자를 먹어서 암이 예방된 것이 아니라, 암 발생 확률이 낮은 건강한 사람이 피자를 많이 먹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나], [다], [라]의 논거에 기초하여 볼 때, 암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피자를 먹겠다는 결정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 2

I. 문제

문제2 (60%, 800~1000자)

제시문 [나], [다], [라]는 제시문 [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나], [다], [라]의 문제가 무엇인지 실제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각각의 대처 방안을 [마]의 관점을 바탕으로 논술하시오.

[가] 추○○씨는 새벽에 일어나 인터넷으로 외국어 강의를 듣는다. 직장에 가는 지하철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일에 관한 업무 메일을 하고, 하루의 일정을 결정한 다음, 아침 뉴스를 본다.

점심 시간에는 주말에 볼 영화를 예매하고, 오프라인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최신 뮤지컬도 체험해 보기도 한다. 집에 오는 지하철에서 게임을 하거나, 야구 중계를 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한다.

저녁에는 채팅을 하고, 전자책(e-book)을 보고, 산악 동호회 페이지에 사진도 올리고, 글도 올려놓는다. 휴가 때 여행 갈 곳이나 필요한 것들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찾아보기도 한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교과서

[나] “허튼소리에 관하여”를 쓴 철학자 해리 프랑크푸르트에 따르면, 허튼소리를 늘어놓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와는 다르다. 거짓말쟁이는 진리를 감추려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반면, 허튼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에만 관심이 있고, 그 말의 합리성 여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허튼소리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사실과 부합하든 부합하지 않든간에 어떤 목적을 위해 자기 의도에 맞는 말만 한다. 즉 허튼소리를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며, 자신이 하는 말의 합리성 여부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는 ‘진리의 가장 큰 적은 거짓말이 아니라 헛소리’라고 했다.

- 스티븐 로, 『왜 똑똑한 사람들이 헛소리를 믿게 될까』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교과서

[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복종, 무지는 힘.’ 그는 25센트짜리 동전 한 닢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거기에 도 조그만 글씨로 똑같은 구호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빅브라더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 동전에 있는 빅브라더의 눈마저 그를 노려보았다. 빅브라더의 눈은 동전, 우표, 책 표지, 깃발, 포스터, 담뱃갑 등 그 어디에나 있었다. 늘 그 눈이 감시를 하고, 그 목소리가 포위했다. 잘 때든 깨어 있을 때든, 일을 하든 식사를 하든, 집 안에서든 집 밖에서든, 목욕할 때든 침대에 누워있을 때든 상관 없었다. 빅브라더에게서 벗어나기란 불가능했다. 몇 세제곱센티미터의 해골 속 외에는 자기 자신이란 것이 없었다.

- 조지 오웰, 『1984』 / 『고등학교 도덕』교과서

[라] 남자의 아내가 실종되었다. (… …) 그는 여기저기에 아내를 수소문했다. 아내 친구들이나 아내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요컨대 그들은 최근 며칠 동안 그녀와 메일을 주고 받거나 접촉하지 못했다고 했다. (… …) 그는 하는 수 없이 아내를 처음 만난 조이시티닷컴에 접속했다. 그곳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서로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 말고도 거기서 만나 결혼에 골인한 커플이 스무 쌍이나 더 있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결혼 커플이 그 정도인 만큼 동거 커플까지 합하면 그보다 몇 배 더 많은 남녀가 그곳에서 인연을 맺은 것이었다. (… …)

그러나 아내가 실종된 마당에 그곳에 접속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그는 게시판과 공지 사항란에 아내의 실종을 알리는 한편 아내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한시라도 빨리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 …) 글을 올린 지 서너 시간쯤 지났을 때 메일 한 통이 날아왔다. 꿈꾸는 백조였다. (… …) 그녀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또 왜 하필 자신이 이런 굵직한 소식을 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말한다니면서, 어제 아내가 죽었다고 했다. 퇴근길 횡단보도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받혀 그 자리에서 절명했다는 것이다. (… …) 아내의 시신이 안치된 곳은 G 병원 영안실이였다.

그는 모니터에 이마를 맞댄 채 두 손을 깎지 끼었다. 그는 G 병원 영안실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신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아내의 죽음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망설였다. 영안실에 간다는 것은 사이버 세계에서의 이탈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오피스텔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안절부절못했다. 그 모습은 흡사 철창 속에 갇힌 정신병자 같았다. (… …) 그는 여태까지 가상 공간에서 아내와 관계를 맺고 살았으므로 그 공간을 떠나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는지 예측할 수 없었다.

- 박석근, 『남자를 빌려 드립니다』

[마]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제1원칙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주체성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인간을 돌이나 탁자보다 더 존엄한 것으로 만든다. 인간은 미래를 향해 자신을 던지는 것, 미래 속에 자신을 집어넣는 것을 의식하는 존재이다. 실존주의의 첫걸음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실존에 대해 주인이 되게 하고 자신의 실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할 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교과서

II.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1. 출제의도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수반되는 정보 사회의 문제(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올바른 자아 정체성의 확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출제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몇 가지 문제를 구체적 예를 통하여 제시하게 한 다음, ‘실존철학’의 힘을 빌려 그와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2. 문항 해설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로 인터넷과 불가분의 세상에서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라는 것이다. 문제점들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비유적인 방법을 통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본 것이다.

[나]는 ‘허튼소리’라고 하는 에세이를 들었는데, 이는 사이버 공간과 연결시켜 설명해 보면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욕설이나 비방의 글이 광범위하게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로 일어나게 되는 구체적인 예를 들게 한 것이다.

[다]는 조지 오웰의 소설에서 빌려온 내용으로 사이버 감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포털 사이트는 일단 사용자가 정보를 올리면 그에 대한 재산권을 소유하게 되고, 이는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개인의 정보를 특정 포털 사이트가 가지게 되고 필요에 따라 개인의 모든 행적을 감시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라]의 문제점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몰입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현실 세계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사이버 공간에서 얻을 수 있지만, 이는 현실을 도피하고 인터넷 중독으로 이어져 실생활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현실 세계와 가상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폐해를 지적한 것이다. 예컨대, 고등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고 인터넷 게임 중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제시문 [나], [다], [라]와 관련된 인터넷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사르트르의 실존철학이라는 측면에서 구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각각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우선 [나]와 관련해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높은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내가 한 행동이 결과도 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털 사이트들의 정보 독점 및 남용 횡포에 대처하며, ‘잊혀질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다. 자신이 올린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라]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은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다.

3. 채점 기준

- 제시문 [가]를 통해 제시문 [나], [다], [라]가 ‘각각의’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제시문 [나], [다], [라]를 실제 현실과 연관 지어 볼 때 일어나는 혹은 일어날 수 있는 예를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
- 제시문 [마]를 통해 제시문 [나], [다], [라]에서 생겨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핵심

4. 답안사례

제시문 [가]는 인터넷이 우리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인간 생활에 있어 좋은 점만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지적할 수 있다.

제시문 [나], [다], [라]는 인터넷 발달로 인한 문제점들을 비유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나]의 허튼소리를 사이버 공간과 연결시켜 설명해 보면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욕설이나 비방의 글이 광범위하게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된다. 예컨대, 특정인을 괴롭히게 되는 경우를 찾을 수 있다.

[다]의 빅브라더는 현대 사회의 사이버 감시자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포털 사이트는 일단 사용자가 정보를 올리면 그에 대한 재산을 소유하게 된다. 이는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개인의 정보를 특정 포털 사이트가 가지게 되고 필요에 따라 개인은 모든 행적을 감시당할 수 있다.

[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몰입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현실 세계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사이버 공간에서 얻을 수 있지만, 이는 현실을 도피하고 인터넷 중독으로 이어져 실생활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 예컨대, 청소년이 학교에 가지 않고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의 실존 윤리를 통한 대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익명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높은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내가 한 행동이 결과도 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털 사이트들의 정보 독점 및 남용 횡포에 대처하며, ‘잊혀질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자신이 올린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라]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은 사이버 세계에서도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2016 수시모집 논술전형 인문 사회계열 논술고사

인문계/영미문화계/사회과학부/커뮤니케이션학부

문제 1

I. 문제

문제1 (40%, 800~1000자)

제시문 [나], [다], [라]를 각각 요약하고, 이 중 [가]의 관점을 지지하는 제시문(들)을 바탕으로 [가]를 보완 설명한 후, 제시문 [마]의 관점에서 [가]의 ‘하마스’의 대응방식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가] 지난 몇 차례의 총선에서 승리한 하마스가 가자 지구 주민들이 처한 고립과 차단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 이스라엘 도시들을 향해 끝내 로켓포를 쏘고야 말았다. (… …) 자신이 지닌 무기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우월한 무력적 방법에 의해 점령당한 쪽의 입장에서 보면, 민중의 반응이 꼭 비폭력적일 수만은 없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도시에 로켓포를 발사하면 효과가 있는가? ‘없다’가 답이다. 그런 행동은 포를 쏜 쪽의 대의명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자 지구 주민들의 이런 몸짓을 보고 격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다. 분노가 끓어 넘치는 상태를 ‘격분’이라고 한다면, 폭력이란 도저히 용납 못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린 유감스러운 결론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이해한다면, 테러리즘이 격분을 표출하는 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 격분은 부정적 표현이다. ‘도에 넘치게 분노’해서는 안 되며, 어쨌든 희망을 가져야 한다. 격분이란 희망을 부정하는 행위다. 격분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납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희망이 긍정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경우에, 격분 탓으로 그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 하마스: 1987년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로 창설되어 활동을 해오다가 2006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집권당이 되었다.)

- 스테판 에셀, 『분노하라』

[나] 올바른 행동에서 나오는 기쁨은 찬란하고 아름다운 반면,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서 야기된 화는 비열하고 초췌한 정신을 드러내준다. 게다가 악을 저지한답시고 덕이 악을 흉내 내는 잘못을 범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 …) 만일 잘못된 행동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이 현자(賢者)로서 합당한 일이라면 잘못이 크면 클수록 그의 분노는 클 것이고 그는 더 자주 화를 낼 것이다. 그렇다면 현자는 그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특하면 화를 잘 내는 성격일 것이다. 만일 더 크게 더 자주 화를 내는 것은 현자의 정신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가 완전히 화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해방시키는 것이 옳지 않을까?

- 세네카, 『화에 대하여』

[다] 화의 본질적 요소는 욕구의 측면으로부터 온다. 즉 화는 ‘보복의 욕구’라는 것이다. (… …) 본질적 요소의 관점에서 고찰하면 (… …) 화는 선한 것일 수도 있고 악한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마땅한 정의의 질서에 따라서 보복하기를 욕구할 때, 이것이 덕에 속하는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잘못을 시정할 목적으로, 올바른 질서를 보존한 채 보복을 바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것은 잘못 자체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도에 맞지 않게 보복하기를 욕구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올바른 질서를 벗어나서 보복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거나, 또는 잘못을 없애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보복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에게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다.

- 토마스 아퀴나스, 『약론』

[라]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흔히 나를 화나게 한 장본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앙갚음을 하려고 한다. 이것은 우리 안에 습관적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다.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늘 그 원인을 타인에게 돌렸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화는 일차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데도 우리는 타인을 응징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분노가 줄어들 것이라고 믿는다. 이 같은 믿음은 그 뿌리를 뽑아버려야 한다.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가 난 상태에서는 아무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 타인에게 매우 불친절한 말을 하거나 앙갚음을 위한 행동을 하면 우리 자신의 화가 더욱 커지는 결과가 빚어진다. 내가 남에게 고통을 주면, 그도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덜어보려고 더욱 험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진다. (… …) 남을 응징하는 것은 곧 스스로를 응징하는 것이다.

- 틱낫한, 『화』

[마] 여러분이 이제껏 많이 들어 본 비협조 운동이란 무엇이며, 왜 우리는 이 비협조 운동을 실행하려는 것인가? 나는 비협조 운동이 위법이라는 말을 들어 왔습니다. 나는 그 운동이 위법이라는 말을 과감히 부정합니다. 반대로 비협조 운동은 정당하고 종교적인 교리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타고난 권리이며 전적으로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대영 제국을 사랑한 어느 애국자는 영국 헌법하에서 성공한 반란도 합법적인 것이라 말하였고,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역사적인 예를 인용하였습니다. 나는 이러한 그의 주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성공한 반란이건 아니건 간에 반란이 일반적으로 폭력적 수단에 의해 정의를 왜곡하는 의미를 갖는 한, 반란의 어떠한 합법성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폭력이 유럽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건 간에 인도에서는 결코 쓸모가 없다는 것을 되풀이해서 말해 왔습니다. 폭력주의를 신봉하는 내 친구는 비폭력주의를 약자의 무기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비폭력주의가 가장 강한 무기라고 믿습니다.

- 『고등학교 도덕』교과서

II.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1. 출제의도

분노를 일으키는 타자의 잘못에 대해 과도한 방식으로 분노하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분노 방식의 정당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분노에 접근하는 다양한 관점들을 제공한 후, 그 중에서 구체적 사례를 잘 설명하는 관점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제시된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례를 평가 및 보완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여 이 관점에 따라 구체적 사례를 평가 및 보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2. 문항 해설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 제시문 [나], [다], [라]의 내용을 파악하여 요약하는 것, 2) 이 중에서 제시문 [가]를 지지해주는 제시문을 찾아서 이를 토대로 제시문 [가]를 보완 설명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3) 제시문 [마]의 관점을 파악해서 이를 가지고 제시문 [가]의 ‘하마스’가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에 대응했어야 했는지 논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적절하게 답하기 위해서는, 논술 순서상으로는 뒤에 오게 되겠지만 제시문 [가]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시문 [가]는 이스라엘에 의해 가자 지구 주민들에 대해 가해진 “고립과 차단 상황”에 대응하여 하마스가 이스라엘 도시들을 향해 로켓포 발사로 대응한 것은 일종의 테러리즘으로서 비록 이해할 만하고 불가피한 것, 심지어 당연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적절한 분노의 표시는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분노 자체는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그것의 과도한 방식의 표출은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제시문 [나], [다], [라]의 내용들을 순서대로 파악하면 제시문 [다]가 제시문 [가]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다]는 분노 또는 화를 타인에 의해 가해진 잘못을 시정하려는 목적을 가진 ‘보복의 욕구’라고 규정하고, 보복의 욕구가 올바른의 질서, 정의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 한에서 선한 것이지만, 과도하게 올바른의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악한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제시문 [다]는 화 자체를 내지 말 것을 요구하고, [라]는 화의 책임을 자기 자신으로 돌릴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시문 [다]가 제시문 [가]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면서 ‘하마스’의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달리 보면 하마스의 대응이 ‘올바름의 질서’를 따르게 된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마스의 분노는 용인할 수 있는 것, 올바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 올바른의 기준을 제시문 [마]에서 찾을 수 있다. 제시문 [마]는 저항을 하되(분노를 하되),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할 것을 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시문 [마]의 관점을 취하게 되면 ‘하마스’의 대응방식이 비폭력적이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3. 채점 기준

- 제시문 [나], [다], [라]의 핵심 논지와 내용을 파악하여 서술하는 것이 필요
- 제시문 [가]를 지지해주는 제시문 [다]를 찾고, 이를 토대로 제시문 [가]를 보완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제시문 [마]의 관점을 파악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제시문 [가]의 ‘하마스’가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에 대응했어야 했는지 논술하는 것이 핵심

4. 답안사례

[나]는 타인의 잘못으로 야기된 분노를 일종의 악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분노는 악을 통해 악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파악한다. 한편 만일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현자에게 어울리는 일이라면 현자는 사사건건 화를 내는 사람이라는, 현자의 정신과 어울리지 않는 모순적 규정을 가져오게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나]에 따르면 현자는 화로부터 자유로워야만 한다.

[다]는 보복을 욕구하는 것이 화의 본질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다]는 만일 잘못의 시정을 목적으로 정의의 질서에 따라서 보복을 욕구한다면, 화를 내는 것은 덕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올바른 질서에서 벗어나거나 사람에게 대한 화를 내면서, 도에 맞지 않게 보복을 바란다면 잘못이라고 말한다.

[라]는 화의 원인을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화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게 되면, 타인 역시 우리에게 화를 내게 되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타인을 응징하기 위해 화를 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응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라]는 화가 난 상태에서는 언행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에서 [다]가 [가]를 지지해줄 수 있다. [다]에 따라 [가]를 설명하면, 가자 지구 주민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가해진 고립과 차단상황을 시정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스라엘에 대해 분노를 표출한 것 자체는 이해할 만하고 당연시될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도시에 대한 로켓 공격은 분노를 도에 넘치게 표현한 것으로서, 이 경우 분노는 올바른 질서를 벗어난,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

[마]는 분노 표출의 정당한 방법으로 비폭력, 비협조 운동을 제안한다. 이에 따라 제시문 [가]의 테러리즘으로 표출된 분노가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될 경우 하마스의 분노는 정당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 2

I. 문제

문제2 (60%, 800~1000자)

제시문 [가]와 [나]는 아파트 주거문화에 대한 비판적 관점들을 담고 있다. 그 비판적 관점들의 근거를 제시문 [다], [라], [마]를 바탕으로 논술하시오.

[가] 이렇게 만들어진 마포아파트가 오늘날 도농(都農)을 불문하고 지천으로 널린 아파트 단지의 전형이 되었다는 점에서 1962년에 도화동에 만들어진 마포아파트는 ‘단지식 아파트’의 최초 사례로 볼 수 있다.

(… …)

그로부터 50여 년 이제 도농을 불문하고 아파트는 우리나라의 보편적 주택유형이 되었다.

(… …)

그렇게 빚어진 우리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 개별 주택공간은 여전히 평균적이며 균질한 거주 환경의 획득을 위해 땅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미리 만들어진 레디-메이드(ready-made) 평면으로 구성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기성품을 옆으로 붙이고 위로 쌓아올리는 기계적 조작을 통해 주거 동을 만들어 놓은 뒤 논밭이나 야산을 갈아엎어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부지에 담장을 두르고 마치 레고 블록 놀이라도 하듯 주거 동을 늘어놓아 배열하는 생산방식을 계속하고 있다. (… …)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스스로를 규정하는 공간 환경에 대한 반성이나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유화의 궁극 목표인 ‘스위트 홈’의 마련을 위해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를 외쳐댔다. (… …)

아파트는 파편화된 가족공간의 편리성을 높이는 (… …) 대상이 되었고, 스위트 홈을 찾아 끊임없이 삶의 터전을 옮겨 다니며 교환가치를 높여가는 우리는 대량소비의 주체가 되었다. 건축가나 계획가는 가족공간의 편리성을 높이고 단지의 폐쇄성을 강화하는 일에만 몰두할 뿐, 단지가 앓고 있는 자폐의 병리(病理)나 도시공간의 우울증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 박철수, 『아파트 문화사』

[나] 아파트 정문에 ‘경축!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라는 플래카드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다. 자신들이 살던 집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경축하는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아니면 찾아볼 수 없다.

(… …)

“너 어디 사니, 요즘?”

“아파트에 살아.”

“현대야, 한양이야?”

“한양인데 32평 짜리야.”

오늘날 우리가 ‘집’에 살지 않고 아파트에, 어느 ‘동네’에 살지 않고 기업체의 이름 속에 살고 있음을 위의 간단한 대화에서 알 수 있다.

- 정기용, 『사람·건축·도시』

[다] 덴마크의 크론베르그(Kronberg) 성을 방문했을 때, (… …) 물리학자 보어(Bohr)가 하이젠베르그(Heisenberg)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람들이 햄릿(Hamlet)이 여기에 살았다고 생각하자마자 곧 이 성이 바뀌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가? 과학자로서 우리는 성이란 단지 돌들로 구성되었다고 믿으며, 건축가가 그것들을 구축한 방식을 감탄한다. 돌, 고색창연한 녹색지붕, 교회의 목조조각들 등이 교회 전체를 형성한다. 이들 중 어느 것도 햄릿이 여기에 살았다는 사실에 의해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바뀐다. 갑자기 벽체들과 누벽들이 아주 다른 언어로 이야기한다. 정원은 전체 세계가 되고, 어두운 모서리는 우리에게 인간 마음의 어둠을 상기시키며, 우리는 햄릿의 ‘사느냐 죽느냐’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햄릿에 대해 아는 것은 그의 이름이 13세기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가 여기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그가 실제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셰익스피어가 그가 의문을 갖도록 한 문제들, 그가 드러낸 인간의 마음 속, 그리고 그도 역시 땅 위에, 즉 여기 크론베르그에 장소를 찾았어야 하는 것 등을 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크론베르그 성이 우리에게 아주 독특한 성이라는 것을 안다.”

-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라] 그래서 이 땅에 새겨진 옛 길들을 걷다보면 최초로 길을 만든 사람들이 궁금해진다. 그 사람들이 그리워진다.

언덕길을 오르기 전 마지막 논두렁에서 바라본 작은 논이 정경이나, 재를 넘다 쉬면서 바라보던 앞산의 풍경을 옛 사람들과 같이 내가 지금 바라본다는 것은 나 또한 그 길의 역사에 편입됨을 의미한다. 할아버지가 보았던 풍경을 아버님이 똑같이 바라보고, 같은 길목에서 나 또한 동일한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길도 축음기의 레코드판 같이 풍경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 …) 그래서 길은 풍경의 저금통이다. (… …)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삶의 흔적이 깊이 각인된 길과 마을들, 그리고 집터들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 정기용, 『사람·건축·도시』

[마] 개인보다는, 그 혹은 그녀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중요해지는 시기가 있다.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사건사들보다는 매일의 체험된 역사가 중요해지는 때가 있다. 후자의 경우는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미세한 상황들이 강조된다. (… …) 이 때 우리는 사회생활의 관계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관계 속의 인간*. 이는 개인들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를, 내가 타인들과 공유하는 경관에, 도시에, 그리고 자연 환경에 연결하는 관계들도 일컫는다. (… …) 이것이 바로 매일의 역사인 것이다. (… …)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 …) 것이다. (… …) 그것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한 가계의, 한 도시의 정신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관점의 변화를 이보다 더 잘 서술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미셸 마페졸리, 『부족의 시대』

II.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1. 출제의도

물리적 ‘공간’은 그곳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장소’가 된다. 즉 ‘장소’는 자연 환경과 인문환경이 아우러져 만들어진 고유한 특성을 가지며, 또한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활동이나 의미가 담긴 특별한 곳이다. 이와 같은 장소의 고유한 성격을 ‘장소성’이라 하고, 어떤 장소에 대한 감정을 ‘장소감’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장소감은 특히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삶을 영위했던 집단이 그 장소에서 삶을 영위하며 만들어가는 것이고, 거꾸로 그 집단은 그 장소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그것이 형성된 역사는 이와 같은 ‘장소’, ‘장소성’, ‘장소감’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의 발전과정에서 기준은 편리성과 환금성이 우선시 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아파트 발전과정을 ‘장소’, ‘장소성’, ‘장소감’의 관점에서 비판하기 위하여, ‘장소’, ‘장소성’, ‘장소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을 담은 제시문 [다], [라], [마]를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재의 아파트 주거문화(제시문 [가]와 [나])에 대하여 비판하도록 하였다.

2. 문항 해설

제시문 [가]와 [나]는 오늘날 한국의 아파트 주거문화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담고 있다. ‘편리성’, ‘환금성’ 만을 염두에 두는 아파트 주거문화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아파트 문화는 무엇을 간과하는가? 이 간과하는 요소들을 제시문 [다], [라], [마]가 담고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한 개념에 바탕을 둔 아파트 주거문화 비판을 제시할 것을 문항은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소’, ‘장소감’, ‘장소성’이라는 개념 등을 직접 쓰지 못하더라도, 그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답안에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제시문 [가]와 [나]는 현재의 아파트 주거 문화의 중요한 특징이 편리성, 사회적 지위나 생활수준의 지표로서의 역할, 그리고 환금성(換金性)임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대지나 주변 환경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가 경시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제시문 [다], [라], [마]는 인간과 공간, 인간과 환경, 그리고 한 공동체와 그들이 뿌리내리고 있는 공간이나 환경과의 관계가 근본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문 [다], [라], [마]는 제시문 [가]와 [나]에서 전개하고 있는 아파트 주거문화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각각의 제시문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는 주위 환경을 무시하는, 천편일률적이고, 폐쇄적이고, 환금성만을 염두에 둔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한다. 제시문 [나]는 아파트의 ‘장소성’과 ‘장소감’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그 환금성만을 염두에 두고, ‘집’으로서의 고유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현 아파트 주거문화를 비판하는 관점을 제시한다. 제시문 [다]는 특정한 공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그 공간이 ‘장소’로 된다는 하나의 예를 보임으로써 아파트 주거문화에 대한 비판의 관점을 제공한다. 제시문 [라]는 특정 공간과 그 공간을 이용하는 인간들 간의 관계를 ‘길’과 그 길에서 동일한 ‘풍경’을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함으로써 아파트 주거문화에 대한 비판의 관점을 제공한다. 제시문 [마]는 제시문 [라]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제공한다.

3. 채점기준

- 제시문 [가]와 [나]가 가지는 공통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제시문 [다], [라], [마]의 내용 파악과 더불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핵심
- 제시문 [다], [라], [마]는 제시문 [가]와 [나]의 주거 문화에 대한 비판적 관점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음을 서술하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

4. 답안 사례

1962년의 마포아파트를 출발점으로 하여 ‘아파트’는 이제 우리나라의 보편적 주택유형이 되었다. 이 아파트 주거문화는, 제시문 [가]와 [나]에 의하면, 편리함을 갖춘 ‘스윙트 홈’을 가능하게 하고, “한양인데 32평짜리야”라는 발언이 말해주듯 사회적 지위나 삶의 수준을 드러내는 척도가 되며, 나아가서는 투자 혹은 투기의 주요 대상이 됨으로써 “교환가치를 높여주는” 중요 수단이 된다. 반면 아파트는 땅의 조건을 염두에 두지 않음으로써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잃게 되었고, 아파트 단지는 그 이웃에 대하여 자폐적이 되었으며, 각 ‘스윙트 홈’들은 파편화되었다. 바로 그렇기에 우리는 각 개인에게 고유의 ‘집’에, 그리고 ‘동네’에 살지 못하고, 아파트 공사업체 이름과 평형수가 대변해주는 균질한 공간에 살고 있게 되며, 바로 그렇기에 잦은 이사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제외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제시문 [다]는, 햄릿과 크론베르그 성의 관계를 통하여, 단지 돌들로 축조된 하나의 물리적 공간이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면서 독특한 장소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제시문 [라]는 대를 잇는 한 가족공동체가 동일한 길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들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길의 역사에 편입되고, 또 그 길 위에서 바라보는 그 풍경으로부터 전달되는 의미를 공유함으로써 진정한 한 가족 공동체가 됨을 잘 보여줌으로써, 인간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공간이나 환경과 맺고 있는 관계의 근본적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제시문 [마]가 강조하는 “관계 속의 인간”일 터인데, 이를 통해 한 공동체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서 존속하게 될 것이며, 이 점이 또한 [가]와 [나]에서 비판하고 있는 아파트 주거문화가 결여하고 있는, 그렇지만 한 공동체의 존속에 근본적인 차원일 것이다.